휴브글로벌, 폭발사고 사망자 5명

현장사망 4명에 치료도중 1명 숨져 … 유독가스 흡입 부상자 급증

9월27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휴브글로벌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사망자가 5명, 부상자가 16명으로 늘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고로 부상해 서울지역 병원으로 이송된 공장 근로자 이모(49)씨가 끝내 숨졌으며, 인근 공장 근로자들이 유독가스를 흡입했다며 병원을 찾아 부상자가 16명으로 증가했다.

경찰과 소방서는 밤새 사고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유독가스 중화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다.

사고는 9월27일 오후 3시43분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구미산단 4단지 소재 화학제품과 화장품을 제조하는 휴브글로벌에서 20톤짜리 탱크로리에 적재된 불산(불화수소산: Hydrofluoric Acid)을 작업장으로 공급하던 중 폭발이 일어나면서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28>